제4장 | 받침의 발음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이 조항은 국어의 음절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 국어의 표기법상으로는 일부 쌍자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을 종성에 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발음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에 놓일 때에는 이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가령 'ㅋ, ㅌ, ㅍ'과 같은 홑받침이나 'ㄲ, ㅆ'과 같은 쌍받침은 각각 'ㄱ, ㄷ, ㅂ', 'ㄱ, ㄷ'으로 바뀐다. 또한 겹받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되며, 탈락 후 남은 자음도 7개 자음에 속하지 않으면 그중 하나로 바뀌게 된다.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닦다[닥따]	키읔[키윽]	키읔과[키윽꽈]	옷[옫]
웃다[욷:따]	있다[읻따]	젖[젇]	빚다[빋따]
꽃[꼳]	쫓다[쫃따]	솥[솓]	뱉다[밷:따]
앞[압]	덮다[덥따]		

이 조항은 앞선 제8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종성에 놓인 홑받침 및 쌍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음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음절 종성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종성에서는 7개 자음만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제시된 자음들은 [ㄱ, ㄷ, ㅂ] 중 하나로 발음이 바뀌어야 한다. 이때 'ㄲ, ㅋ'은 [ㄱ]으로, 'ㅅ, ㅆ, ㅈ,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ㅂ]으로 바뀐다. 그래서 '낫, 낮, 낯, 낱'과 같은 단어들은 받침이 다르게 쓰였더라도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낟]으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처럼 음절 종성에서 발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자음들은 모두 장애음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장애음에 대립되는 자음 부류는 공명음이며 비음과 유음이 여기에 속한다. 공명음은 종성에 놓여도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즉 'ㄴ, ㄹ, ㅁ, ㅇ'은 종성에서도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어 음절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7개의 자음은 장애음 3개(ㄱ, ㄷ, ㅂ)와 공명음 4개(ㄴ, ㄹ, ㅁ, ㅇ)이다.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ㄶ, ㄺ, ㄻ',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넋[넥]	넋과[넉꽈]	앉다[안따]	여덟[여덜]
넓다[널따]	외곬[외골]	핥다[할따]	값[갑]
없다[업:따]			

다만,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 → 밤:는]	밟게[밥:께]	밟고[밥:꼬]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이 조항은 제9항과 동일하게 제8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종성에 놓인 겹받침의 발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겹받침이 단어의 끝에 오거나 다른 자음 앞에 오면 홑받침이나 쌍받침과는 달리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게 된다. 이것은 음절 종성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지 못하는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겹받침도 음절 종성에서는 제8항에서 규정된 7개 자음 중 하나로 실현된다.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뒤에 오는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조항에서는 뒤의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ㄻ'은 [ㄱ], 'ㄵ'은 [ㄴ], 'ㄾ, ㄽ, ㅀ'은 [ㄹ], 'ㅄ'은 [ㅂ]으로 발음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두 겹받침을 이루는 두 자음 중 뒤의 자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이 조항에 제시된 겹받침 중 'ㄾ'을 제외한 나머지 겹받침은 지역, 계층, 단어 등 어떠한 변수와도 상관없이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다만 'ㄾ'은 다소 복잡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서도 단어에 따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ㄾ'은 원칙적으로는 'ㅂ'을 탈락시켜 [ㄹ]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밟-'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때에는 [ㅂ]으로 발음되고, '넓-'이 포함된 복합어 중 '넓죽하다'와 '넓둥글다', '넓적하다' 등에서도 'ㄹ'을 탈락시켜 [ㅂ]으로 발음한다. 동일한 겹받침 'ㄾ'의 탈락 자음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어에 따라 달리 규정한 것은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한편 '널따랗다, 짤막하다, 얄찍하다'와 같은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ㄾ'으로 끝나는 '넓-, 짧-, 얇-'과 관련을 맺지만 겹받침을 표기하지 않고 종성의 발음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기대로 발음하면 된다.(한글 맞춤법 제21항 참조)

제11항

겹받침 'ㄺ, ㄻ, ㅀ'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닭[닥]	흙과[흑꽈]	맑다[막따]	늙지[늑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맑게[말께]　　묽고[물꼬]　　얽거나[얼꺼나]

이 조항은 제10항과 더불어 겹받침이 어말이나 자음 앞과 같은 음절 종성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0항과 반대로 이 조항에서는 겹받침을 이루는 두 개의 자음 중 앞선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라 'ㄺ, ㄻ, ㅀ'은 음절 종성에서 앞선 'ㄹ'이 탈락하게 된다. 그 결과 'ㄺ, ㄻ'은 각각 [ㄱ]과 [ㅁ]으로 발음되며, 'ㅀ'에서는 'ㅍ'이 남게 되는데 'ㅍ'은 음절 종성에서 [ㅂ]으로 발음되므로 결과적으로 'ㅀ'은 [ㅂ]으로 발음된다. 다만 용언 어간의 겹받침 'ㄺ'은 'ㄱ' 앞에서 앞 자음 'ㄹ'이 탈락하는 대신 뒤 자음 'ㄱ'이 탈락하여 [ㄹ]로 발음된다. 그래서 'ㄺ'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고, -거나, -거든' 등과 같은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ㄺ'을 [ㄹ]로 발음한다. 이것은 용언의 활용형뿐만 아니라 '긁개[글깨], 밝기[발끼]'와 같은 파생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2항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1. 'ㅎ(ㄶ, ㅀ)' 뒤에 'ㄱ, ㄷ, ㅈ'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놓고[노코]　　좋던[조:턴]　　쌓지[싸치]

많고[만:코]　　않던[안턴]　　닳지[달치]

[붙임 1] 받침 'ㄱ(ㄺ), ㄷ, ㅂ(ㄼ), ㅈ(ㄵ)'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되는 경우에도, 역시 두 음을 합쳐서 [ㅋ, ㅌ, ㅍ, ㅊ]으로 발음한다.

각하[가카]　　먹히다[머키다]　　밝히다[발키다]　　맏형[마텽]
좁히다[조피다]　　넓히다[널피다]　　꽂히다[꼬치다]　　앉히다[안치다]

[붙임 2] 규정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ㅅ, ㅈ, ㅊ, ㅌ'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옷 한 벌[오탄벌]　　낮 한때[나탄때]
꽃 한 송이[꼬탄송이]　　숱하다[수타다]

2.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ㅆ]으로 발음한다.

닿소[다:쏘]　　많소[만:쏘]　　싫소[실쏘]

3.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붙임] 'ㄶ, ㅀ'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않네[안네]　　않는[안는]　　뚫네[뚤네 → 뚤레]　　뚫는[뚤는 → 뚤른]

* '뚫네[뚤네 → 뚤레], 뚫는[뚤는 → 뚤른]'에 대해서는 제20항 참조.

4. 'ㅎ(ㄶ, 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싸이다]　　많아[마:나]
않은[아는]　　닳아[다라]　　싫어도[시러도]

이 조항은 받침으로 쓰이는 'ㅎ'의 발음을 규정하고 있다. 받침으로 쓰인 'ㅎ'은 뒤에 어떠한 말이 오든 원래 음가대로 발음되지 못하고 변동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변동의 양상이 조건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받침 'ㅎ'의 여러 가지 발음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조건에

따라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와 모음이 오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3은 받침 'ㅎ'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이고 4는 모음이 오는 경우이다.

1. 'ㅎ(ㄶ, ㅀ)' 뒤에 평음 'ㄱ, ㄷ, ㅈ'으로 시작하는 말이 결합하는 경우로 주로 용언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나타난다. 이때에는 'ㅎ'과 'ㄱ, ㄷ, ㅈ'이 합쳐져서 격음인 [ㅋ, ㅌ, ㅊ]으로 발음된다. 용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경우는 아니나 음운 환경이 같은 '싫증'에서는, 'ㅎ'과 'ㅈ'이 [ㅊ]으로 줄지 않고 [실쯩]으로 발음된다. 이는 '증(症)'이 붙는 말의 일반적인 발음 경향과 같다. '염증[염쯩], 건조증[건조쯩]'에서 알 수 있듯이 '증(症)'이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일 때에는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 '싫증'도 이러한 경향에 따라 [실쯩]으로 발음한다.

한편 1의 [붙임]에 따르면 'ㅎ'은 평음 앞에 올 때뿐만 아니라 평음 뒤에 올 때에도 격음으로 합쳐진다. 1의 [붙임 1]과 [붙임 2]는 이런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붙임 1]은 한 단어 내에서 평음 뒤에 'ㅎ'이 올 때 격음으로 줄어드는 경우를 다루고, [붙임 2]는 'ㅎ'에 앞서는 자음이 원래는 'ㄷ'이 아니지만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ㅎ'과 합쳐져 [ㅌ]으로 바뀌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ㅎ'이 평음 뒤에 놓이면서 이 두 자음이 하나의 격음으로 줄어들 때에는 '꽂히다, 넓히다'와 같이 용언 어간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용언 어간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평음과 'ㅎ'이 곧바로 줄어든다. 그래서 '꽂히다'와 '넓히다'는 [꼬치다]와 [널피다]로 발음된다. 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먼저 'ㅎ' 앞에 있는 자음이 대표음으로 바뀌거나 또는 겹받침의 경우 자음이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후 'ㅎ'과 축약된다. '낮 한때'를 [나찬때]가 아니라 [나탄때]로 발음하는 것, '닭 한 마리'를 [달칸마리]가 아니라 [다칸마리]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다. 즉 '낮 한때'의 경우 '낮'의 'ㅈ'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한'과 결합하여 [탄]이 되며, '닭 한 마리'의 경우 '닭'의 겹받침에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발음이 [닥]이 된 후 '한'과 결합하여 [다칸]이 되는 것이다.

2.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고 그 대신 'ㅅ'을 [ㅆ]으로 발음하게 된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ㅎ'과 'ㅅ'이 합쳐져 [ㅆ]이 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여기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다.(‘더 알아보기’ 참조)

3. ‘ㅎ’ 뒤에 ‘ㄴ’이 결합할 때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놓는[논는], 쌓네[싼네]’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을 ‘ㅎ’이 ‘ㄴ’ 앞에서 곧바로 ‘ㄴ’으로 바뀌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놓는[논는], 쌓네[싼네]’ 등에서 ‘ㅎ’을 [ㄴ]으로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ㄴ’에 동화되는 현상인데, ‘ㄴ’에 동화되어 ‘ㅎ’이 [ㄴ]으로 발음되려면 먼저 [ㄷ]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놓는[논는→논는]’, ‘쌓네[싼네→싼네]’에서와 같이 먼저 ‘ㅎ’이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ㄴ’에 동화되어 [ㄴ]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것은 제18항에서 음절 종성에 놓일 때 [ㄷ]으로 발음되는 자음 목록에 ‘ㅎ’을 포함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붙임]에서는 ‘ㄶ, ㅀ’ 뒤에 ‘ㄴ’이 결합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고 앞의 자음인 ‘ㄴ’과 ‘ㄹ’이 발음된다. 따라서 ‘않네’는 [안네], ‘뚫네’는 [뚤네→뚤레]로 발음된다. [뚤네→뚤레]의 변화는 ‘ㄹ’ 뒤에 오는 ‘ㄴ’이 ‘ㄹ’로 바뀌는 음운 현상에 따른 것으로 표준 발음법 제20항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4. ‘ㅎ’ 뒤에 모음이 오더라도 ‘ㅎ’은 온전히 발음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ㅎ’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탈락한다. ‘ㅎ’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인데, ‘낳은[나은], 쌓이다[싸이다], 끓이다[끄리다]’에서 보듯 모두 ‘ㅎ’이 탈락한다.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원래는 연음이 일어나서 받침 ‘ㅎ’은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탈락한다.

‘ㅎ’이 단어 둘째 음절 이하의 초성에 놓이면, ‘ㅎ’을 온전하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한자어 중 ‘고향, 면허, 경험, 실학’과 같은 단어나 ‘진술하다, 신선하다, 섬하다, 주저하다’와 같은 복합어에서는 ‘ㅎ’을 그대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현실 발음에서는 이런 경우의 ‘ㅎ’을 발음하지 않기도 하는데, 모두 표준 발음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 **'ㅎ'의 발음 변화**

'닿소[다:쏘]'와 같이 'ㅎ(ㄶ, ㅀ)' 뒤에 'ㅅ'이 결합할 때 'ㅎ'과 'ㅅ'이 [ㅆ]으로 실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앞서 보인 대로, 'ㅎ'과 'ㅅ'이 곧바로 축약되어 [ㅆ]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ㅎ'이 먼저 대표음 'ㄷ'으로 바뀌고(ㅎㅅ → ㄷㅅ) 'ㄷ' 뒤에서 'ㅅ'이 경음으로 바뀐 후(ㄷㅅ → ㄷㅆ) 'ㅆ' 앞에서 'ㄷ'이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비록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실제로 각 단계를 현실 발음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단 표준 발음법에서는 '젖살[젇쌀]'과 같이 'ㅆ' 앞의 'ㄷ'을 온전히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점이 문제이다.

제13항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깎아[까까]	옷이[오시]	있어[이써]	낮이[나지]
꽂아[꼬자]	꽃을[꼬츨]	쫓아[쪼차]	밭에[바테]
앞으로[아프로]	덮이다[더피다]		

이 조항은 홑받침이나 쌍받침과 같이 하나의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받침을 그대로 옮겨 뒤 음절 초성으로 발음하는 것이 국어의 원칙이며, 이것을 흔히 연음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말들은 연음의 원칙을 따르지만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강, 방'과 같이 'ㅇ'으로 끝나는 말은 연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ㅇ'을 초성으로 발음할 수 없다는 국어의 발음상 제약 때문이다. 둘째, 제12항에서 보았듯이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받침 'ㅎ'도 탈락하므로 연음의 예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굳이[구지], 밭이[바치]'와 같이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도 연음이 되지 않는다. 연음이 되려면 'ㄷ, ㅌ'이 그대로 초성으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구개음화(표준 발음법 제17항 참조)가 적용되어 'ㅈ, ㅊ'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연음의 예외는 좀 더 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다. 그런 점에서 연음은 국어의 중요한 발음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실 발음에서는 연음이 되어야만 하는 환경에서 연음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잘못된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엌이[부어기], 부엌을[부어글], 꽃이[꼬시], 꽃을[꼬슬] (×)

이러한 경우는 모두 연음을 적용하여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옳다.

부엌이[부어키], 부엌을[부어클], 꽃이[꼬치], 꽃을[꼬츨] (○)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넋이[넉씨]	앉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곬이[골씨]	핥아[할타]	읊어[을퍼]	값을[갑쓸]
없어[업:써]			

이 조항은 제13항과 더불어 받침의 연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3항이 홑받침 또는 쌍받침과 같은 단일한 자음으로 된 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 조항은 두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겹받침의 연음에 대해 다루었다. 겹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하면 겹받침의 앞 자음은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되고 겹받침의 뒤 자음은 다음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여 발음된

다. 받침의 자음 중 하나가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연음 현상에 포함된다. 다만 겹받침의 두 번째 자음이 'ㅅ'인 'ㄳ, ㄵ, ㅄ'의 경우 연음이 될 때 'ㅅ' 대신 [ㅆ]으로 발음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 발음에서는 겹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에서, 아래와 같이 겹받침 중 하나를 탈락시키고 연음하는 오류가 많이 일어난다.

닭이[다기], 닭을[다글], 여덟이[여더리], 여덟을[여더를] (×)

이러한 경우는 앞 자음은 종성에서 발음하고 뒤 자음은 연음하여 발음하는 것이 맞으므로 다음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옳다.

닭이[달기], 닭을[달글], 여덟이[여덜비], 여덟을[여덜블] (○)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 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밭 아래[바다래] 늪 앞[느밥] 젖어미[저더미]
맛없다[마덥따] 겉옷[거돋] 헛웃음[허두슴]
꽃 위[꼬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넋 없다[너겁따] 닭 앞에[다가페] 값어치[가버치]
값있는[가빈는]

이 조항은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때 해당 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3항, 제14항과 비교할 때, 받침을 가진 말 뒤에 오는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라는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로 받침의 발음 양상도 달라진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음이 되지 않는 대신, 받침이 대표음인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연음과 대비하여 절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젖어미, 겉옷'의 '젖, 겉'과 같은 홑받침을 가진 말의 경우 대표음 중 하나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저더미], [거돋]'이 된다. '값있다'의 '값'과 같이 겹받침을 가진 말은 자음이 하나 탈락하여 대표음으로 바뀐 후 역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가빋따]가 된다.

이 조항에서는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오는 모음의 종류를 'ㅏ, ㅓ, ㅗ, ㅜ, ㅟ'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음들은 단모음 'ㅣ' 또는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ㅑ, ㅕ, ㅛ, ㅠ'와 같은 이중 모음을 제외한 나머지 모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기에 빠진 'ㅢ, ㅐ, ㅒ' 등도 실제로는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들을 제외한 것은, 받침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 ㅑ, ㅕ, ㅛ, ㅠ'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면 'ㄴ'이 첨가되어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발음 양상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앞일[암닐], 꽃잎[꼰닙]'의 경우 '[아빌], [꼬딥]'이 되지 않고 뒷말의 초성에 'ㄴ'이 첨가된 후 다시 첨가된 'ㄴ'에 의해 앞말의 받침이 동화된다.(표준 발음법 제29항 참조)

다만, '맛있다, 멋있다'의 경우 원래 규정대로라면 '맛, 멋'의 'ㅅ'이 대표음 [ㄷ]으로 바뀐 후 초성으로 넘어가므로 '[마딛따], [머딛따]'가 올바른 발음이지만 현실 발음에서 '[마싣따], [머싣따]'가 많이 나타나므로 이것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붙임]에 나오는 예 중 '값어치'는 '-어치'가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음이 되는 대신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현재의 국어사전에서는 '-어치'를 접미사로 다루고 있지만 이 말은 역사적으로 실질 형태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값어치'에서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 알아보기

- **'맛있다/멋있다'의 발음**

'맛있다[마딛따/마싣따], 멋있다[머딛따/머싣따]'의 두 가지 표준 발음 중 [마싣따]와 [머싣따]의 경우 받침 'ㅅ'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앞에서 [ㄷ]으로 발음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맛이 있다, 멋이 있다'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맛이 있다, 멋이 있다'의 경우 '맛, 멋' 뒤에 형식 형태소인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으므로 연음이 되어 [마시 읻따], [머시 읻따]가 되며 이것이 줄어들어 [마싣따], [머싣따]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는 단어 내의 경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맛있다', '멋있다'는 '맛/멋'과 '있다'가 결합한 합성어이지만, 사람들이 '맛있다', '멋있다'를 내부에 경계가 없는 한 단어로 인식하여 [마싣따], [머싣따]로 발음한다고 보는 것이다.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귿이[디그시]	디귿을[디그슬]	디귿에[디그세]
지읒이[지으시]	지읒을[지으슬]	지읒에[지으세]
치읓이[치으시]	치읓을[치으슬]	치읓에[치으세]
키읔이[키으기]	키읔을[키으글]	키읔에[키으게]
티읕이[티으시]	티읕을[티으슬]	티읕에[티으세]
피읖이[피으비]	피읖을[피으블]	피읖에[피으베]
히읗이[히으시]	히읗을[히으슬]	히읗에[히으세]

이 조항은 자음 글자를 나타내는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의 발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받침을 가진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지읒이, 치읓이, 피읖이' 등은 각

각 '[지으지], [치으치], [피으피]'로 발음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르면 '디귿,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음의 명칭이 정해진 당시의 현실 발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사실 '디귿'을 제외한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같은 명칭은 1933년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 제정 당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글 자모의 명칭은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에서 비롯하는데, 당시에는 'ㅈ, ㅊ, ㅋ, ㅌ, ㅍ, ㅎ'이 초성에만 쓰이는 글자였기 때문에 그 명칭도 '지, 치, 키, 티, 피, 히'와 같이 1음절이었다. 그러다가 모든 글자들을 종성에 표기하도록 표기법이 바뀌면서 이 글자들의 명칭도 2음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진 글자의 명칭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지에 대한 논란은 1930년대에도 있었다. 당시 조선어학회에서 간행하던 학술지인 "한글"에는 이런 경우 연음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연음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현재의 표준 발음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표준 발음법을 정할 당시에는 실제 발음을 중시하여 현재와 같은 규정이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현실 발음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항과 구별된다.